

론하였다.⁴⁴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론에서, 앞에서 언급한 예일대학 교수의 진단처럼,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입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방식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이다. 좀 더 기독교 학교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 두려움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높게 쌓아 올리는 방법보다는 직접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출처, 즉 인간이 우연히 발생한 자연의 일부(실증주의)라면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개념 의식, 윤리, 종교성(아직도 세계의 많은 인구들은 종교적이다), 높은 지능(intelligence) 같은 것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묻고 당당히 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플과 성경 지식만으로 이러한 바빌론에 대결할 만한 능력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고, 우리는 이미 그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의 제니 리(Jenny Lee)가 교단배경을 가진 대학에게 현재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접근방법을 다시 돌아보라고 제안한다. 다양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교수-학생과의 관계 개선과 학생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믿음 증진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⁴⁵ 교단 교리로 인한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대학들만이라도 성경을 경전으로만이 아닌 세상에 맞설 도덕적 진리와 삶 속의 신학(daily theology)이 되는 길잡이로서의 창작적 커리큘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⁴⁴ 현재는 그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계시는 교회에서 자주 설교를 부탁 받아 어려움없이 섬기고 있다.

⁴⁵ Jenny Lee, “Religion and college attendance: Change among students” *Review of Higher Education* 25:4 (2002): 369-384.